

“청년이 찾는 역동적인 경제도시 만들겠다”

박홍률 목포시장



“4대 주력산업을 통해 청년이 찾는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큰 목표를 향한 항해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어느 해보다도 기대가 크다”면서 “지난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 세운 계획들을 차근차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 한해 청년을 위한 4차산업, 수리조선업 및 친환경선박 산업, 관광산업, 수산식품산업 등 4대 주력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스마트그린 산업 조성, 공공임대형 스마트 지식 산업센터 건립, 목포スマ트인재 교육 센터 설립 등

한 관광상품 확충, 목포역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삼학도와 내항 간 아트브릿지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레포츠 체험공간 조성, 드론라이트쇼와 해상낭만쇼 개최 등 불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 한다. 또 오는 10월과 11월 열릴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에 힘쓰고, 2028년 세계섬엑스포 유치와 국제수산식품박람회 등 대형 행사 개최도 추진한다.

수산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생산·기공·유통·수출 등 수산식품산업의 전주기 계계가 될 수산식품수출단지를 하반기에 착공하고 대양산단을 김산업 특화단지로 육성한다.

/목포=김근호 기자

“7대 전략 통해 나주 미래 100년 활짝 열겠다”

윤병태 나주시장



“새해는 지난해 뿐만 회망의 씨앗을 썩 틔우고 풀듯하게 키워 나주 대전환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윤병태 시장은 2일 계묘년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나주건설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7대 전략을 지렛대 삼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분야별 행복 체감형 시책을 적극 펼쳐 시민과 함께 나주의 미래 100년을 활짝 열어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윤 시장은 올해 시정 방향이 될 7대 전략으로 ‘영산강 시대 관광 활성화’, ‘돌아오는 농촌·지속 가능한 농업’,

하천 사업 선정을 통해 영산강 저류지를 국가정원으로 본격 조성한다. 맛과 품질이 보증된 나주배 명품 브랜드화 육성, 농촌 빙집 재생,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정책을 비롯,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나주 농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쏟는다.

나주만의 차별화된 밤상 브랜드 정립을 통한 멀리 관광 명소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차세대 고효율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혁신도시 유치’, ‘RE100정책 자문위원회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국제대학도시 건설’ 등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나주=조성준 기자

“모두가 행복한 자립형 경제 도시 조성할 터”

이병노 담양군수



이병노 담양군수는 계묘년 새해, 군정 목표로 ‘모두가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를 제시했다.

이 군수는 2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은 군민과 함께 담양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갈 민선8기의 실질적 원년”이라며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각 분야에서 사람과 제도, 환경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를 위해 6대 분야별 핵심 정책으로 ▲부자농민 육성으로 잘사는 부자농촌 조성 ▲담양형 향촌 복지통한 효도행정 실현 ▲청년이 돌아오는 담양, 젊음이 넘치는 담양 건설 ▲사회기반시설(SOC) 구

축으로 정주 여건 개선 ▲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행복한 ‘남도문화 관광도시 담양’ 조성 ▲군민과 소통을 통한 포용적 공감행정 구현을 제시했다.

이 군수는 부자농촌 조성을 위해 우선, 농업에신을 지난해보다 4.4% 상향 편성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쌀값 하락 극복을 위해 다른 작물과 담양 명품 팔기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최첨단 스마트팜을 적용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청년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 사관학교 운영과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서부지소 신규 조성에도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는 ‘향촌복지’도 군정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 군수는 이를 위해 “맞춤형 의료와 요양복지, 주치의 담당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중년들의 소통 공간인 ‘중년 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장학금 신설과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에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또,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청년들이 찾아오는 담양을 만들기 위해 제2일반산업단지에 정부 주도 핵심지원 사업을 반영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담양=조승재 기자

“장성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만들기의 해”

김한종 장성군수



“계묘년 새해는 눈앞에 놓인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장성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기회의 해로 삼겠습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2일 신년사를 통해 민선8기 지난 반년의 여정 속에서 군민과의회,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새해 장성의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한종 군수는 가장 먼저 장성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관광 분야’의 새판을 짜겠다는 각 오이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관

식진흥원 유치’를 통해 음식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과 ‘죽령산 산림 휴양 인프라 구축’으로 코로나19와 힘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체유 관광’도 본격 활성화 한다.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과 ‘2025년 도민체전 유치’를 통해 ‘스포츠 관광’의 새 시대를 연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장성 사랑 상품권 증액 발행’을 비롯한 ‘황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한 ‘국립 암열대작물 실증센터’ 설립은 계획대로 5월에 첫 삽을 뜯다. /장성=심재식 기자

“해남형 ESG확산, 지역발전 백년대계 세우겠다”

명현관 해남군수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해남형 ESG를 군정의 전 분야로 확산해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우겠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인 5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의 위상에 걸맞게 내실있고 속도감 있는 예산운용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전망했다.

명 군수는 “올해 최우선 과제를 군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경제활성화에 두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해남만의 전략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해남군은 올해 본예산으로 전년 대비 322억원 증가한 8721억원을 편

성했다. 지난 2019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아래 5년 연속 예산 규모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력산업인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2%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일 경제와 복지, 기초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올해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414억원을 확보하면서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과 어린이 국가어학 학장사업,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등 대규모 지역 혁신사업 추진

에 탄력이 되고 있다. 누적판매액 4490억원으로 전국 군단위 최대 빌행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정부 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300억원 빌행 규모를 유지해 흔들림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평활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차 구 조성, 면단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재생에너지 산단 및 발전단지 구축을 통한 솔라시티 기업도시 활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28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작은학교 살리기 선진모델 구축 등 인구감소 대응 10개 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평활가족이 유통센터를 개관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만들겠다”

우승희 영암군수



“민선8기 2년차인 2023년은 실질적인 혁신 영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준비해 온 혁신의 토대에 더 나은 영암의 미래를 위해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군수는 올해에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의 청사진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그 성과를 하나씩 군민에게 펼쳐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기회도시 영암을 만들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인구복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영암의 가치를 발견하고 키우는 마을 코디네이터와 로컬크리에이터 활동, 청년유동 사업가 육성,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등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나가는 구상을 예상이다.

개조 전기차 실증사업, 자동차 튜닝사업 등 산업생태계 다양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대불산단에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와 영암에서 생산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주력 할 계획이다.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지역 대표 고교육성, 진로진학지원센터 설

치, 영암미래교육재단 설립,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영암의 교육경쟁력도 강화한다.

또한 영암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극대화해 남도제일 역사문화 중심지 생태관광도시 영암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쏟아 남도제일 힐링 영암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태환경의 상징인 깃대종 남생이 브랜드화,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등을 통해 월출산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 할 방침이다.

‘하늘 아래 첫 부처’ 마애여래좌상 탐방길 개발, 천자문과 활자 등 혼란증과 결합한 새로운 왕인문화축제 준비, 국립공원 박람회와 달빛축제 개최 등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영암=김형우 기자

“탁월·차별·다양으로 인구소멸위기 극복”

이상철 곡성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는 2023년 새해에는 “지역의 강점을 살린 탁월함, 남들이 시도하지 못할 차별화,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성으로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군수는 2일 신년사를 통해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목표로 계획했던 공약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올해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산학협력단은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협업공동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실무협의체 만남을 정례

화해 인구, 교육, 청년 일자리, 주거, 스마트 농정 분야에서 새로운 특화 전략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위한 정주 환경과 주거 정책을 확대하겠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자립마을 ‘청백스마트빌리지’를 세부적으로 구상하고, 인구감소 대응 투자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하잡(JOB)센터를 지역민과 기업을 잇는 경제 상생 플랫폼으로 만들고 곡성 전통시장은 인근 기차마을, 뚝방마켓과 연결해 문화·관광형 모델로 개발하고, 옥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권역별 발전 계획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곡성읍은 체류형 복합 인프라와 콘텐츠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누리도서관을 개관해 교육·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며 “집실습지·훼손지 복원사업과 동악산 생태축 서식지 복원사업은 올해 안으로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석곡권은 자연과 환경을 활용한 생태 치유 힐링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곡성=홍상연 기자

“주민편의 향상·지역발전에 역량 집중”

김희수 진도군수



“주민편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올해 군정 핵심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2일 “농수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육 혁신’과 ‘공평하고 따뜻한 군정’, ‘문화예술자원 특화 및 관광업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먼저 기간산업인 농·수산분야 예산을 30% 이상 편성해 벼와 보리, 구기자, 올금의 수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검정쌀의 생산 가격을 보전·지원한다.

서망항 어항기능 확충과 육량종자 육종 연구시설 건립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시설 인 히트펌프를 지원해 기후 변화 대응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